

문제 화장실을 즉시 임시 조치하고, 고속도로 화장실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조속 개선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서울신문, 3.6) >

- ◆ 용변 보는 내 모습이 흰히... “최근 추세” 고속도로 화장실 ‘경악’
 - 밤 시간대 수동휴게소 화장실 유리 천장에 칸 내부가 비추어 불편 초래

□ 민자고속도로인 포천~화도 고속도로 수동휴게소 화장실은 천장에 유리 소재를 사용하여 야간에 화장실 내부가 비치는 문제로 이용자에게 불편감을 초래하였습니다.

* 화장실에 햇빛이 드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낮에는 문제없으나 밤 시간대 천장 유리에 반사되는 현상 발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도로운영기관(포천화도고속도로)으로 하여금 문제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금일중 불투명 시트지로 즉시 임시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금일중 고속도로 화장실 전수조사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	(044-201-3389)
		담당자	서기관	박정현	(044-201-3900)
	주무관		이혜성	(044-201-4576)	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	(044-201-3909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	(044-201-3912)